



禮記

| 예기 함께하는 삶에서의 품위있고 예절바른
행위에 대한 기록

| 조민환 교수





예기

함께하는 삶에서의
품위있고 예절바른
행위에 대한 기록

4강. 예와 제사를 지내는 목적



보본반시(報本反始)

은혜를 입으면 보답할 것을 생각하여 그 근본을 잊지 않는다는 뜻.



예약문화의 중요한 의미

제이아



제사의 시작과 예의 형성



은사 (恩賜)

은혜로운 선물



제사

예의 정신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

제사

예와 관련된 형식 중 **가장 중요한 것**



예의 정치는 근본적으로 말하면
일종의 **혈연정치의 속생**을 띠고 있기 때문



『예기』속

제사의 의미



凡治人之道，莫急於禮。禮有五經，莫重於祭。

범 치 인 지 도 막 급 어 례 례 유 오 경 막 중 어 제

夫祭者，非物自外至者也，自中出生於心也。

부 제 자 비 물 자 외 지 자 야 자 중 출 생 어 심 야

心怵而奉之以禮，是故唯賢者，能盡祭之義。

심 출 이 봉 지 이 례 시 고 유 현 자 능 진 제 지 의

무릇 사람을 다스리는 도리는 예보다 급한 것이 없고, 예에는 오경(五經)이 있으나 제사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무릇 제사란 것은 물건이 아니고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속에서 나와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다. 마음이 슬퍼서 예로써 받들기 때문에 오직 어진 사람이라야 제사의 의미를 다할 수 있다. 『예기』 「제통(祭統)」





제사의 본질적인 의미

故聖人參於天地，並於鬼神，以治政也。

고 성 인 삼 어 천 지 병 어 귀 신 이 치 정 야

處其所存，禮之序也，

처 기 소 존 례 지 서 야

玩其所樂，民之治也。

완 기 소 락 민 지 치 야

그런 까닭에 성인이 천지의 법칙을 참찬(參贊)하고 귀신의 일을 아울러서 정사를 다스리는 것이다. 천지와 귀신이 있는 곳에 처하여 그들은 제사하는 것은 예의 차례다. 천지와 귀신이 즐겨하는 것을 완미하는 것은 바로 백성을 다스리는 일이다.

『예기』 「禮運(예운)」





원리

천지의 제사
종묘의 일도
부자의 도도
군신의 도



제사의식에는 기본적으로
보본반시 (報本反始)의 사유가 담겨있다



제사에 담긴

보몬만시의 사유



Q.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예의 예 가지 근본

禮有三本，天地者，生之本也，先祖者，

례 유 삼 본 천 지 자 생 지 본 야 선 조 자

類之本也，君師者，治之本也。

류 지 본 야 군 사 자 치 지 본 야

無天地，惡生？無先祖，惡出？無君師，惡治？

무 천 지 악 생 무 선 조 악 출 무 군 사 악 치

三者偏亡，焉無安人。故禮，上事天，下事地，

삼 자 편 망 언 무 안 인 고 례 상 사 천 하 사 지

尊先祖而隆君師，是禮之三本也。

존 선 조 이 룡 군 사 시 례 지 삼 본 야

천지(天地)는 생(生)의 근본이며, 선조(先祖)는 후손의 근본이고, 임금과 스승은 치도(治道)의 근본이다. 천지가 없다면 생(生)이 있을 수 없고, 선조가 없다면 태어날 수 없고, 임금과 스승이 없다면 치도(治道)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없어도 사람은 안존(安存)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예(禮)란 위로는 하늘을 섬기고, 아래로는 땅을 섬기며, 선조(先祖)를 존경하고, 임금과 스승을 높이는 것이 예(禮)의 세 가지 근본이다.

『荀子(순자)』 「禮論(예론)」



천지와 선종에 관한 섬김은

예의측면에서 **보본반기**로 귀결된다



예로 보답하는 것

보(報)

근본을 마음으로 쫓는 것

반(反)

社，所以神地之道也。地載萬物，天垂象，取財於地，

사 소 이 신 지 지 도 야 지 재 만 물 천 수 상 취 재 어 지

取法於天，是以尊天而親地也，故教民美報焉，

취 법 어 천 시 이 존 천 이 친 지 야 고 교 민 미 보 언

家主中霤，而國主社，示本也。

가 주 중 류 이 국 주 사 시 본 야

唯爲社事單出里。唯爲社田，國人畢作，唯社，

유 위 사 사 단 출 리 유 위 사 전 국 인 필 작 유 사

丘乘共粢盛，所以報本反始也。

구 승 공 자 성 소 이 보 본 반 시 야

토지신[社]에 대한 제사는 대지의 신을 존중하는 것이다. 땅은 만물을 기를 수 있고, 하늘은 일월성신을 드리워 인간에게 법칙을 보인다. 인류는 땅에서 필요한 물건을 취하고, 하늘에서는 법칙을 취한다. 이런 점 때문에 하늘을 존경하고 땅을 친애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천지에 완전하게 보답하도록 가르친다. 토지신에 제사지낼 때 구승(丘乘) 구역 사람들이 그 고장에서 생산한 물건을 제사에 올리니, 이는 대지가 사람들을 양육한 근본에 보답하고 자기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간다. 즉, [보본반시]는 행위다.

『예기』 「郊特牲(교특생)」



땅보다 하늘이 더 높은 이유

萬物本乎天，人本乎祖，此所以配上帝也。

만 물 본 호 천 인 본 호 조 차 소 이 배 상 제 야

郊之祭也，大報本反始也。

교 지 제 야 대 보 본 반 시 야

만물은 하늘에 근본을 두고 있다. 사람은 조상에 근본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조상신인 상제에게 배향을 하는 것이다. 하늘에 대한 제사[郊]는 크게 보답하고 시초로 돌아가려는 것이다.

『예기』 「郊特性(교특생)」





보본반사는 예의

행부심

樂也者，施也。禮也者，報也。

락 야 자 시 야 례 야 자 보 야

樂，樂其所自生，而禮反其所自始。

락 락 기 소 자 생 이 례 반 기 소 자 시

樂草德，禮報情反始也。

락 초 덕 례 보 정 반 시 야

악은 베푸는 것이다. 예는 갚는 것이다. 악은 그 낳는 것을 즐거워하고, 예는 그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악은 덕을 밝히는 것이고, 예는 정에 보답하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예기』 「樂記(악기)」



예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인 **제어**